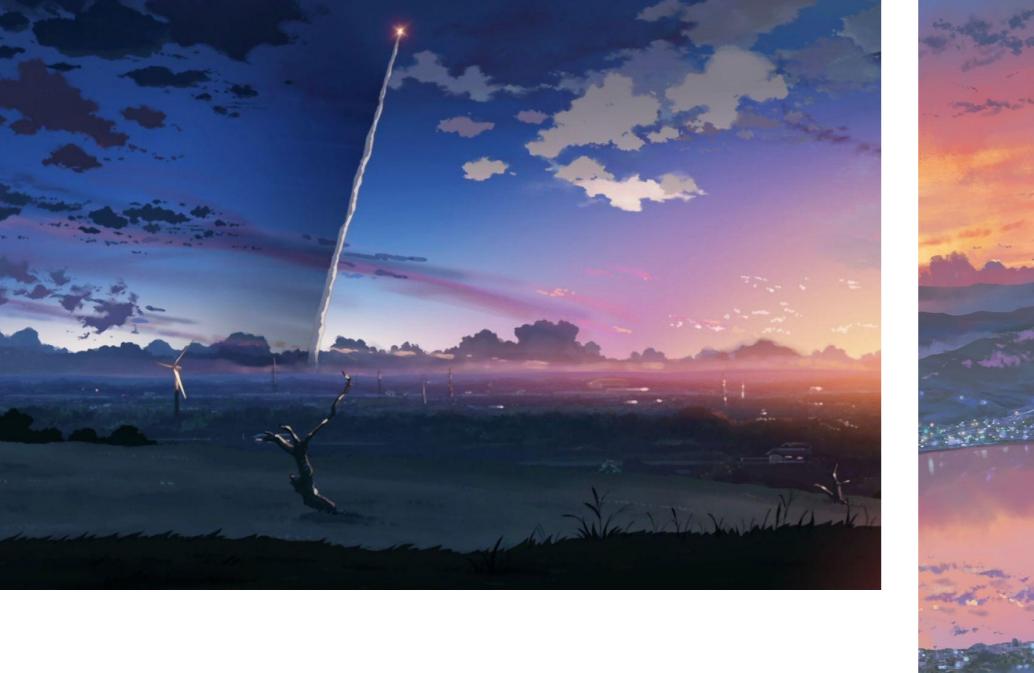


# 신카이 마코토

2019 <날씨의 아이>





2002년: 『별의 목소리』

2004년: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2007년: 『초속 5센티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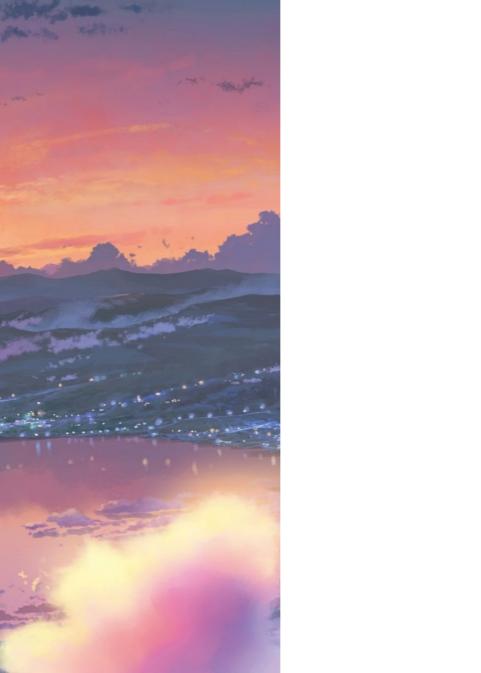
2011년: 『별을 쫓는 아이』

2013년: 『언어의 정원』

2016년: 『너의 이름은』

2019년: 『날씨의 아이』

2022년: 『스즈메의 문단속』





# 빛의 마술사, 신카이 마코토

작품 설계 인터뷰

신카이 마코토(1973년생)는 일본 나가노현 출신의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2002년 '별의 목소리'로 데뷔하며 짧은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정선과 독창적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주목받았다.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2004)는 전후 일본의 모습을 배경으로 청소년의 우정과 그리움을 다뤘다. 2007년작 '초속 5센티미터'는 도시와 사람 간의 거리감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감정의 교차점을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그려 큰 인기를 얻었다. '언어의 정원'(2013)은 일본 전통 정원을 배경으로 한 정교한 작화와 섬세한 대사가 특징이며, 짧지만 강렬한 서정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대표작 '너의 이름은.'(2016)은 청소년의 몸이 바뀌는 이야기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인연과 만남을 그려내며 흥행에 대성공했다. 특히, 특유의 디테일한 배경 묘사와 OST의 조화가 폭넓은 연령층의 공감을 얻었다. 2019년 '날씨의 아이'에서는 현대 도시의 환경 문제와 초자연적 현상을 결합해 더욱 깊이 있는 스토리를 전개했으며, 이러한 특유의 주제와 감정선을 통해 매 작품마다 강한 인상을 남겼다. 신카이는 현실적인 배경과 판타지를 결합해 관객에게 공감을 주며, 작품마다 짧은 세대의 감정과 시대적 요소를 담아내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감독님의 작품에서는 빛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가 인상깊습니다.  
빛의 표현에 있어 영향 준 아티스트나 자연의 특징이 있나요?



작가의 고향인 나가노현 미나미사군의 풍경  
태어나고 자란 마을입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골짜기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해가 산에 가려 늦게 뜨고 빨리 지곤 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나서도 하늘은 상당히 오랫동안 밝은 상태였는데, 산그림자가 마을을 덮고 밤이 될 때까지 하늘의 색이 변하는 모습을 몇 시간이고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빛을 묘사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품의 배경을 정할 때 특별히 영감을 받는 요소나 기준이 있나요?  
실제 장소의 빛과 색이 갖는 고유한 감정이나 분위기를  
어떻게 작품 속 배경에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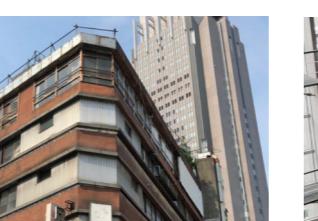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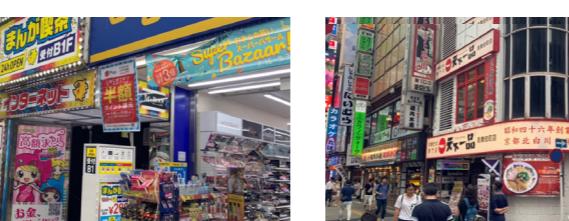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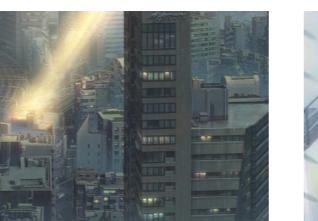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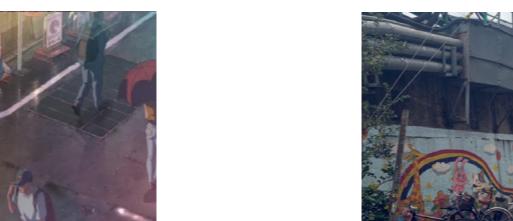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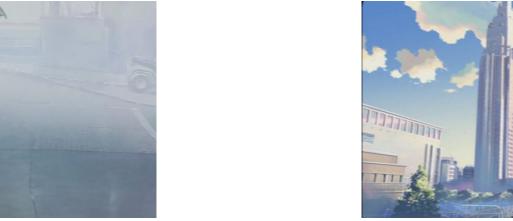
지진으로 인해 폐허가 된 분고모리 기관고를 모티브로 한 배경



아오모리 마을의 모티브가 된 스와호수

제가 어린 시절 겪고 느꼈던 빛과 색, 그 감각들을 관객에게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며 매일같이 보았던 그 ‘변화무쌍한 빛’이 제 기억에 남아 있고, 그 기억이 저의 작품에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현실의 빛과 풍경을 작품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제 작품이 좀 더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언어의 정원’을 만들 때 비가 오는 날의 그 빛과 색감을 그대로 살려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감정은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그 공간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감동이었죠. 실제로 저도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자주 찾다니며 그곳의 느낌을 온전히 담아내려 노력해요. 그렇게 작업하는 것이 저에게는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업 이상으로, 저의 어린 시절 감성까지 불어넣는 일인지도 하니까요



배경 원화(위)

모티브가 된 실제 배경 (아래)



『스즈메의 문단속』을 로드트립 형태로 구성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화 속에서 스즈메가 방문하는 장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신주쿠

Road Station Oya Kaigan

오리카사 역

Miyakoundo Koen Parking Lot



스즈메의 여행을 로드트립으로 구성한 것은, 일본 곳곳에 남은 재난의 흔적을 따라가며 추모와 애도의 과정을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스즈메는 에히메현, 고베, 도쿄를 거쳐 후쿠시마로 향하는데, 각각의 장소는 일본이 겪어온 재난과 상처를 상징합니다. 에히메는 홍수 재해, 고베는 대지진을 겪었고, 후쿠시마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상처를 남긴 곳이죠. 이런 여행을 통해 관객이 장소에 담긴 기억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치난시

유노츠루 온천

유노히라 온천

Bungomorikikanko Park

Uwajima-Unyu Ferries Ticket Office

야와타하마시

야와타하마 역

오즈성

이요오즈 역

세키가와 역

아카시 대교

맥도날드 2호선스마점

롯코 산

고베 오토기노쿠니

신코베

도쿄

준덴도 대학

Juntendō-Byōin (Juntendo Univ. Hp.)

오차노미즈

Hijiribashi

신주쿠

Road Station Oya Kaigan

오리카사 역

Miyakoundo Koen Parking Lot

‘재난 3부작’ 속에서는 주인공 개인이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의 커다란 위협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위협이 감독님의 삶의 경험과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스즈메의 문단속』 미미즈



『날씨의 아이』 용신



『너의 이름은』 티아메트 혜성

일본에서의 일상은 거의 재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경고음이 울리고 “곧 지진이 올 거야”라는 알림이 자주 뜨죠. 때로는 실제로 지진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위에 어느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지진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경고도 없이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체감한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순식간에 그 생각을 뒤집어 놓았고, 저는 그 사건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깨달음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사건이나 재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날씨의 아이』에서 호다카가 총을 가지게 된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이 총이 호다카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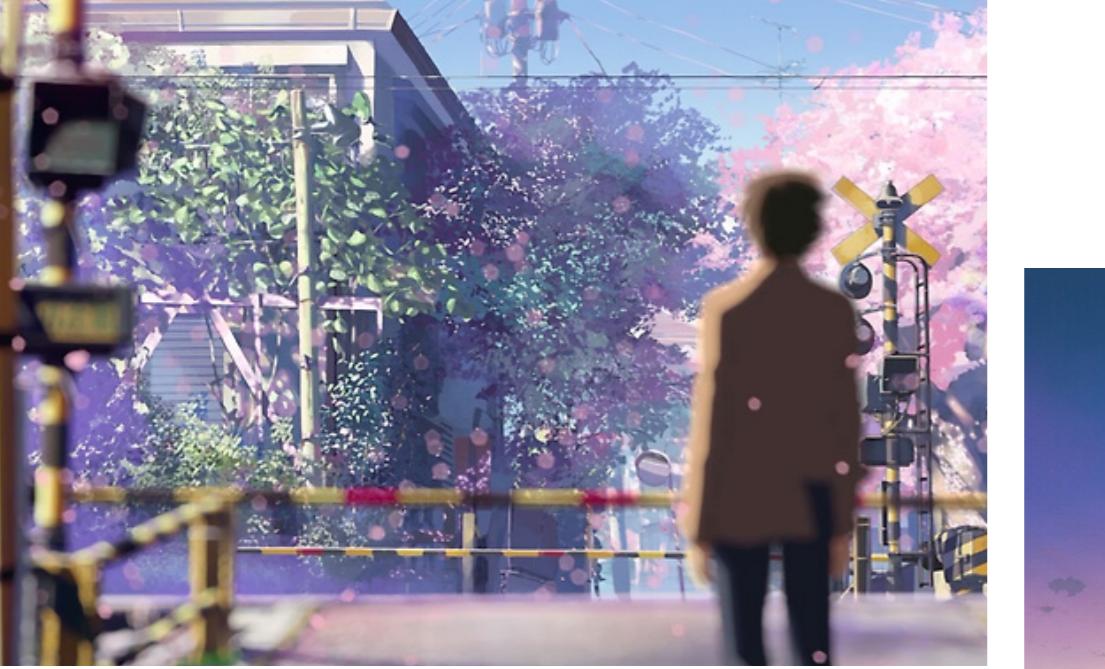


호다카가 우연히 얻게 된 총은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이 총은 도시에서 느끼는 불안과 소외감을 상징합니다. 청소년들은 때때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반항심을 표현할 수단을 찾게 되죠. 호다카에게 총은 일종의 탈출구이자, 자신이 처한 무력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총은 폭력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호다카는 그것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장하게 됩니다.

호다카는 도쿄에 도착한 뒤 화려한 도시에서 겪는 무력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다 어느 날 시비가 걸려 길가에서 쓰레기통을 치우게 되는데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물건인 총이 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장난감이라 여겼으나, 실제 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쉽게 버리지 못하고 계속 소지하게 된다.





『초속 5센티미터』 이후 작품들에서는 주인공들이 재회하는 해피엔딩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결말을 선택한 이유와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초속 5센티미터』에서는 첫사랑의 아련함과 상실감을 현실적으로 다뤘지만, 이후 저는 단절과 상실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관계 속에서 서로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수많은 이별과 상실을 겪기 때문에, 적어도 영화 속에서는 인물들이 다시 만나 감정적 충족을 얻는 결말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결말을 통해 관객들이 상실 이후에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며,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에서 재난은 단순히 공포나 비극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감독은 재난을 인간이 겪는 상실과 불안을 탐구하는 도구로 삼으며, 이를 통해 사람이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의 작품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일상을 무너뜨리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다시 삶을 이어간다. 감독은 재난을 실제보다 상징적으로 묘사하여 관객들이 트라우마를 반복하지 않고 위로와 공감을 얻도록 유도한다.

일본에서 잦은 자연재해는 일상 속 불안 요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다. 감독은 이 불안을 통해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재난이 남긴 고통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실제 재난 장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편이나,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를 통해 작품을 연출해나간다.

또한 감독은 사회적 문제도 작품에 반영하며, 환경 변화나 사회적 불평등이 재난과 맞물릴 때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후 변화와 같은 현대의 문제를 비유적으로 다루며, 재난이 단순히 자연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맥락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하고자 한다. 이렇게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오며, 감독은 이를 통해 재난의 폭넓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감독의 작품에서 재난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강인함을 시험하는 과정으로 묘사된다.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이를 통해 자신을 넘어 타인과 연대하게 된다.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는 예술적,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독의 작품은, 관객들에게 재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피어나는 희망과 회복을 상기시킨다.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만드는 그의 작품은 재난을 넘어서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며 관객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영화에서 현실적인 이별을 묘사하는 이유는 이별을 통해 관계의 깊이와 삶 속 불안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인간이 다시금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감독은 이별을 단순한 고통이 아닌 연대와 재연결의 가능성으로 본다. 예기치 않은 재난과 상실은 그의 영화에서 인물들의 일상을 급작스럽게 변화시키고, 인물들은 이 과정에서 상처받으면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회복해 나간다. 이처럼 이별은 관계의 단절을 넘어 서로의 삶에 지장을 주는 흔적을 남기며, 새로운 연결과 이해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초속 5센티미터』와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다. 『초속 5센티미터』는 첫사랑이지만 물리적 거리로 멀어지는 관계를 다루며, 사랑이 어떻 이별과 재회를 향한 갈망을 다각도로 탐구하며 각각 다른 형태의 이별과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초속 5센티미터』는 어린 시절 첫사랑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멀어지는 마음의 거리를 서정적으로 그려낸다. 소년 타카키와 소녀 아카리는 서로를 좋아하지만,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거리감은,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인 초속 5센티미터처럼 서서히 그들 사이를 갈라놓으며, 그럼에도 타카기는 아카리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이 작품은 이별이 단지 슬픔만이 아닌, 마음 속 깊이 새겨지는 감정의 여운을 전달한다.

반면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는 전쟁과 이념의 갈등 속에서 서로 다른 세계에 놓인 두 인물이 재회를 약속하고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히로키와 사유리는 한때 함께 비밀스러운 연구를 공유하며 꿈을 나누지만, 사유리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며 그들의 약속은 멀어져 간다.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차원과 공간으로 멀어져도 끝까지 재회를 꿈꾸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이별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신카이 감독이 강조하는 이별 이후의 연대와 회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